

甌山教 儀禮服飾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itual Dress of Jeung San Kyo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 교수 임 상 임
박사과정 김 현 경

Dept. of Clothing, WonK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Im, Sang-Im
Doctoral Student : Kim, Hyun Gyung

◀ 목 차 ▶

- | | |
|----------------------|-------------|
| I. 序 論 | IV. 要約 및 結論 |
| II. 甌山教의 創立과 儀禮 參考文獻 | 참고문헌 |
| III. 各 教(派)의 儀禮服飾 考察 | |

<Abstract>

This study on Jeung San Kyo, one of Korea's new religions, considered the name, kind, form, color and the thoughts of ritual dress which is involved in 15 religious branches acting currently according to books and the actual research. The following is below.

1. Each names of ritual dresses called religious branches are Bob Bok(법복), Doh Bok(도복), Yeah Bok(예복) and Jea Bok(제복).
2. In most religious branches, ritual dress is the Korean cloths which Poh is wear above and Kwan is put on, and the form of Poh(포) is the similar with Durumagi(두루마기), Danryungpoh(단령포), Jungchimak(중치막), Jikryungpoh(직령포) etc, but not the form of Git, Moo and Yiohmim. Kwanmoh is named Chill-Chung-Kwan(칠층관), Yiun-Hwa-Kwan(연화관), Yiun-Kwan(연관), In-Hwa-Kwan(인화관), Tong-Chon-Kwan(통천관) etc.
3. In most religious orders but Dae Suun Jin Li Hueay(대순진리회), Jeung San Doe Jang(증산도장), Colors are used, white, lightblue, and yellow is used in Jeung San Pop Jong Kyo(증산법종교), Dong Doe Pop Jong Gyum Gang Doe(동도법종금강도).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White color means the mind of a people tradition, and light blue expresses an Oriental nation, namely, "Korea", and is the color representing Jeung San Kyo, and yellow shows the central religion in the future.

4. Jeung San Kyo ceremony fashion reflects the ideologies of the principal role, the Um and Yang - five elements, and, nationalism according to form, color.

주제어(Key Words): 증산교(Jeung San Kyo), 의례복식(ritual dress), 신흥종교(new religion), 음양오행(Um and Yang-five elements)

I. 序 論

신흥종교 혹은 신흥종교란 기성종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성종교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종교라면 신흥종교는 새로 생긴 종교¹⁾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한국 신흥종교와 신흥종교라는 말은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나, 학계에서는 신흥종교란 근대 한국에서 새로 창립된 500여개의 신흥종교 중에서 水雲의 天道教, 金一夫의 正易思想에 기반한 종교, 甌山(증산)의 甌山敎, 羅喆의 大崇敎, 少太山의 圓佛敎 등 5대 종교를 지칭하며²⁾ 나머지 종교를 신흥종교로 구분한다.

증산교는 1901년 姜一淳(강일순)에 의해 창교되었다. 강일순은 구한말 격동의 시기에 새로운 이념으로 모든 것을 개혁, 수정한다는 의미를 지닌 '天地公事'를 敎義로 하여 증산교를 창립한 후, 자칭 玉皇上帝요 미륵불로서 9년간의 종교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奇行異蹟을 행하면서 39세의 짧은 일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짧은 종교활동, 인생과는 달리 증산교는 구한말 이후 적지 않게 우리의 종교·사회·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증산교는 증산 死後에 증산을 신봉했던 從徒들에 의해 여러 교파로 분열되었는데 1984년 탁명환³⁾은 58개 교파, 1992년 柳炳德⁴⁾은 106개 교파로 조사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산교 교파들은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교파가 많고 현재 15개 교단만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증산교의 발원지인 전북 김제 지역

에 편중되어 있다⁵⁾.

한편 종교행동은 그것이 종교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종교 복식에 있어서 특히 의례복식은 의식을 행할 때의 공경스러운 마음의 외적인 표현 수단임은 물론 종교의 교리·사상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시된다. 때문에 각 종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개별 종교의 의례복식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⁶⁾.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증산교의 여러 교단을 중심으로 치성시에 착용하는 의례복식의 특징과 의례복식에 표현된 상징성을 고찰함으로써 복식에 표현된 종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증산교단 중에서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있는 15개 교단 즉, 보천교, 선도, 순천도, 삼덕교, 동도법증금강도, 태극도, 증산교본부, 보화교, 미륵불교, 증산법종교, 모악교, 무을교, 청도대향원, 대순진리회, 증산도장을 대상으로 그들이 착용하는 의례복식의 명칭, 구성, 형태와 색상 등을 각 교단별로 조사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도식화와 표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증산교 의례복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례복식에 표현된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경전과 문헌, 선행 논문 등에 대한 文獻考察과 직접방문, 면담, 사진촬영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착용되는 儀禮服飾을 실증적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II. 甌山教의 創立과 儀禮

1. 甌山教의 창립

증산교는 1901년 고부의 유생 강일순이 全州 모악산 밑에서 창도한 흠치교와 후에 그의 부인 고씨가 창도한 태을교 및 증산 사후 분파된 종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교주 강일순의 도호가 증산이므로 증산교 또는 증산교단이라고 한다⁷⁾.

증산은 1871년 11월 1일에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시기리 마을에서 태어났다⁸⁾. 1894년 고부에서 일어났던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그의 나이 31세때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서 대각을 얻고 동학과 마찬가지로 “後天世界開闢”을 주창하는 흠치교를 창도하였다⁹⁾.

증산은 1902년부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였다고 한다¹⁰⁾.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天·地·人 三界의 대권을 지닌 主宰者로 가르치면서 천지공사를 행하였다¹¹⁾.

따라서 그의 교리는 「天地公事」로 집약되며, 천지공사는 天·地·人 三界를 주재하는 절대신인 증산이 이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권능으로써 그릇된 相剋理致의 지배를 받아 혼란에 빠진 선천의 세계를 뜯어 고쳐 後天 仙境세계를 건설하여 사람과 신명으로 하여금 안락을 누리게 한다는 일을 지칭한다¹²⁾.

즉 천지의 度數¹³⁾를 뜯어고치는 작업으로서¹⁴⁾ 다시 神道公事, 世度公事, 人道公事를 일컫는다.

그러나 1909년 증산이 사망한 후 증산교는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특히 증산교는 교단 내에서도 경전의 해석에 따라 여러 갈래의 분파가 일어나고 또한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교단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있는 증산교의 주요 교단은 <표 1>과 같다.

2. 甌山教의 儀禮

증산교에서 행하는 제반 의례는 치성이라는 말로

<표 1> 증산교 주요 교단¹⁵⁾

| 교단명 | 창교자 | 창교연대 | 교본부 위치 |
|---------|-----|-------------|--------------------------|
| 보천교 | 차경석 | 1914. 1. | 전북 정읍군 입암면 신마석리 |
| 선도 | 안내성 | 1914.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백운동 |
| 순천도 | 장기준 | 1920. 4. 5 | 전북 김제시 황산면 남양리(개전지) |
| 삼덕교 | 허 욱 | 1920. 10. 3 | 전북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모아동 404번지 |
| 동도법종금강도 | 강승태 | 1924. 2. 22 |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822-1번지 |
| 태극도 | 조철제 | 1825. 4. 28 | 부산특별시 사하구 감천 2동 105번지 |
| 증산교본부 | 이상옥 | 1928.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28번지 |
| 보화교 | 김환옥 | 1930. 7. 1 | 전북 김제군 원평면 쌍용리 |
| 미륵불교 | 정인표 | 1934. 1. | 전북 김제시 태인면 태흥리 282번지 |
| 증산법종교 | 강순임 | 1937. 11.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34-2번지 |
| 모악교 | 여원월 | 1938.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10번지 |
| 대한불교미륵종 | 김계주 | 1942. 9. 9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278번지 |
| 무을교 | 김계주 | 1942.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40번지 |
| 청도대향원 | 김삼일 | 1965. 3.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동곡 |
| 대순진리회 | 박한경 | 1969. 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143-11번지 |
| 증산도장 | 안세찬 | 1978. | 대전광역시 중구 괴정동 132-2번지 |

표현된다(大巡典經 3:31). 증산은 모든 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결과 정성이라고 가르치며 치성 때마다 심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수를 준비하고 의식 진행과정에서도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大巡典經 2:15)¹⁶⁾.

증산교의 모든 의례는 증산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진다. 치성의 절차와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 치성에는 옥황상제로서의 증산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¹⁷⁾. 즉 증산교는 대부분의 교단이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물론 후대로 내려오면서 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교파를 창설한 교주가 증산과 함께 신앙의 대상 내지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그 외 여러 숭배 대상이 가미되기도 한다. 또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군을 비롯한 많은 민족신을 숭배하는 교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증산의 존재는 여전히 증산교인들의 신앙의 주 대상으로서, 상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¹⁸⁾.

증산교단의 대부분은 증산의 탄신기념일과 화천기념일에 치성의식을 치르고 있으며, 그 외 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교단 창교자의 탄신기념일과 화천기념일에도 치성행사를 치르고 있다¹⁹⁾. 그 외 교단에서 특별하게 정한 儀典日에 올리는 修道致誠, 입교 연수의 시작과 끝에 올리는 修道致誠, 祈願致誠, 感謝致誠 등이 있다²⁰⁾.

치성의 절차는 교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크게 제계, 봉헌, 의법, 음복으로 나누어진다. 제계는 심신의 정결과 청결을 말하며, 봉헌이란 준비한 여러 가지 제수를 진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법은 경배, 심고, 천작, 주송 등 여러 가지 치성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음복은 치성 후 진설했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한다²¹⁾.

III. 各 教團의 儀禮服飾 考察

본 장에서는 증산교 15개 교단의 儀禮服飾에 대하여 의례복식의 명칭과 구성, 형태, 색상 등을 분석하여 의례복식의 특징을 고찰하며 아울러 의례복식

에 표현된 사상에 대해 교단의 창립 년도 순서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1. 儀禮服飾의 특징

1) 보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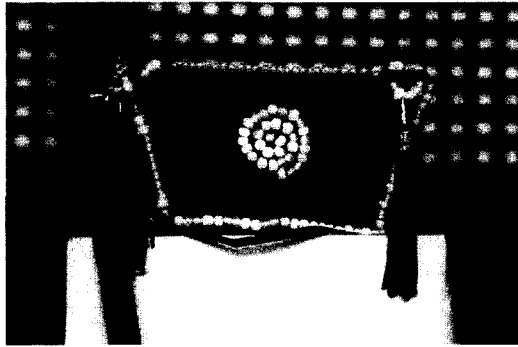
보천교에서는 의례복을 '제복'으로 지칭하며, 관모는 남녀 모두 '예모'라고 지칭한다.

남자 교도들은 청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를 착용하며 그 위에 청색 포를 착용한다. 포의 형태는 <사진 1>과 같이 끈은 직령깃이며 우임이고 소매는 넓으며 소매 끝이 굴려져 있고 무가 있으며 옆이 막혀 있는 주의이다. 포의 길이는 무릎과 발목 사이이며 옷고름으로 여미고, 허리에는 붉은색의 비교적 넓은 띠를 맨다. 여자 교도들은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는데 저고리 색상은 제한하지 않으며 치마는 옥색을 착용한다.

창립 초기에 남자 교도들은 상투를 들고 흑립을 착용한 후 의례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흑립을 착



<사진 1> 보천교 남자 제복



〈사진 2〉 보천교 여자 화관

용하지 않는다. 여자 교도들은 〈사진 2〉와 같은 화관을 착용한다. 화관의 형태는 河圖²²⁾의 괘가 구슬로 장식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화관의 모습과는 다르다.

2) 선도

선도에서는 남자 교도들의 의례복을 '도복', 혹은 '도포'라고 지칭하여 남자 교도들은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후 그 위에 청색도포를 착용하였으며 여자 교도들은 '장삼'을 착용하였으나 현행 의례시에는 착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평상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의례복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관모는 상투를 한 사람은 망건을 쓰고 갓을 착용하고 의례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특정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규제가 없이 자유 의사에 따른다.

3) 순천도

순천도의 남녀 교도들은 전통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한다. 남자 교도들은 한복 위에 두루마기를 착용하는데, 그 형태는 현재 착용하는 두루마기²³⁾ 형태와 동일하다. 특히 한복을 착용할 경우 조끼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²⁴⁾. 이것은 선천과는 달리 현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後天시기이므로 의복 착용법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의복 착용 방식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배냇저고리란 입듯이 현시대는 후천시기의 초기에 해당하므로 저고리

와 바지만을 착용하고 그 위에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시대를 갓 태어난 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관모는 창립 초기부터 남녀 모두 착용하지 않고 있다.

4) 삼덕교

삼덕교에서는 남자 의례복을 '법복'으로 지칭하고 관모는 '通天冠'이라고 지칭하며, 여자 의례복은 '예복'으로 지칭하고 관모는 착용하지 않는다.

남자 교도들은 색상에 관계없이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며 그 위에 흰색 혹은 옥색 포를 착용한다. 포의 형태〈사진 3〉는 보천교의 포의 형태와 같은 통이 넓은 주의이나, 다만 옆에 무가 2개씩 전체 8개가 있고 허리에는 색상에 관계없이 세조대를 맨다. 여자 교도들은 남자 교도들과는 달리 노란색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다. 이전에는 남녀가 모두 동일하게 법복인 포를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의례시에 여자 교도들은 포를 착용하지 않는다.



〈사진 3〉 삼덕교 남자 의례복식

남자 관모인 통천관은 하늘과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 바로 하늘(하느님)의 아들이므로 본래 태어날 때부터 시조와 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형태는 외관상 원통형으로 아래 부분의 넓이가 정수리 부분과 동일하고 정수리 부분이 터져있다. 색상은 검은색이며 소재는 말총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합성 소재로 만들어 착용하고 있다.

5) 동도법종금강도

동도법종금강도의 의례복은 '제복'으로 지칭되며, 관모는 '예관'이라고 한다.

남녀 교도들의 의례복은 동일하다. 기본복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포를 착용한다. 포의 형태는 삼덕교의 포와 유사하나 양옆에 트임이 있는 것이 다르다. 특히 <사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의 앞·뒤 양어깨에서 각각 길게 늘어뜨린 4가닥의 날개가 있고, 뒤쪽 고대 부분이 산자형을 나타내며 뒤쪽에만 사람의 몸통과 양다리의 모양으로 된 천이 양어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포의 색상은 노란색과 흰색이 있으며 교도들의 상·하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날개가 있는 것은 높은

지위의 교도가 날개가 없는 것은 낮은 지위의 교도가 착용한다.

남녀 관모의 형태는 외관상으로 정자관과 비슷하다. 관모의 아래 부분은 정수리 부분과 넓이가 동일하며 정수리 부분이 트여있고, 위쪽 양끝이 산자형이며 그 사이는 둥근 산자형이 7개 있고, 양옆에는 수직으로 6개가 톱니 모양처럼 있어 모가 난 형이며 앞·뒤가 동일하다. 색상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금박을 하여 화려하게 꾸몄다고 한다. 관모도 교도들의 상·하 지위에 따라 다른데 정수리 윗부분 둥근 산자형의 수와 양옆에 수직으로 있는 톱니 모양의 수에 따라 지위를 구분한다.

6) 태극도

태극도에서는 남자 의례복을 '외수의'로, 여자 의례복을 '내수의'로 지칭하며, 관모는 남녀 모두 착용하지 않는다.

남자 교도들은 색상의 제한 없이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며<사진 5> 그 위에 흰색 두루마기를 착용한다. 두루마기 형태는 현재의 일반적인 두루마기 형태와 동일하다. 여자 교도들 역시 흰색의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다.

7) 증산교 본부

증산교 본부의 남자 교도들은 의례시에 색상에 제한없이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흰색 두루마기를 착용한다. 여자 교도들은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사진 4> 동도법종금강도 남·녀 의례복식



<사진 5> 태극도 남자 의례복식



〈사진 6〉 보화교 남자 의례복식



〈사진 7〉 보화교 여자 의례복식

착용하고 있다. 간혹 간편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고리 길이가 길거나 허리에서 묶는 치마 등 개량한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색상은 흰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모는 남녀 모두 착용하지 않는다.

8) 보화교

보화교의 의례복은 ‘大禮服’으로 지칭되며 남자 교도들은 統上下六幅에 前六後六주름, 여자 교도들은 통상하 6폭에 전4후3주름, 行衣는 남자는 소매가 있는 有袖周衣(두루마기), 여자는 통치마를 착용하였다²⁵⁾. 그러나 현재 남자 교도들은 〈사진 6〉과 같이 회색바지와 옥색 저고리를 착용하는데 저고리는 깃과 고름, 싹이 없는 형태이며 좌임이다. 오늘날 한복 저고리의 여밈과는 달리 좌임으로 하는 것은 현재가 선천과 다른 후천 시기이므로 여밈을 달리하여 선·후천의 경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²⁶⁾에서 라고 한다. 또한 여자 교도들도 현재는 〈사진 7〉과 같이 분홍색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착용한다. 여자 교도들의 저고리의 색상은 분홍색, 남자 교도들의 바지 색상은 회색인데 이것은 후천 시기가 오면 하

늘이 붉게 되고 땅은 백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⁷⁾.

남자 관모는 禮冠으로 八角紅蓮花冠, 여자의 예관은 四角紅蓮花冠을 착용하였고 法扇으로 남자는 大中 합죽선, 여자는 中小 합죽선을 지닌다²⁸⁾고 제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남자 교도들의 관모는 ‘피랑자’²⁹⁾라고 하여 ‘입’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재질은 대나무로 제작하고 그 안에 ‘포망’을 착용한다. 포망은 망건 형태이며 소재는 마섬유인 삼베로 제작한다.

또한 남녀 모두 울무로 된 염주와 단주를 지니는데, 이는 울무는 오래 되어도 땅에 묻으면 싹이 오를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취하고자 함이다³⁰⁾.

9) 미륵불교

미륵불교의 남녀 의례복은 ‘법복’이라 지칭되며, 관모는 ‘인화관’이라고 부른다.

남자 교도들은 한복이나 평상복 위에 ‘正服’과 ‘袍衣’를 착용한다(사진 8). 정복인 袍의 형태는 삼덕교 남자 포의 형태와 동일하다. 정복 위에 착용하



〈사진 8〉 미륵불교 남자 의례복식

는 袍衣³¹⁾는 가로 150cm×105cm의 직사각형의 천을 세로로 반을 접어 좌우 대칭이 되게 하여 모서리를 굴린 후 앞부분을 트고 목 부위는 파서 끈을 달아 여미도록 되어 있는 망토 형태의 의복이다. 트임 부분의 가장자리는 道體에 따라 오행색 중의 한 가지 색으로 가는 선이 가식되어 있다.

남자 교도들의 관모는 외형적으로 2층 정자관과 비슷하며 안에 내관이 있다. 내관의 정수리 부분에는 산자형인 삼각형이 8개 있으며 외관에는 산자형인 삼각형이 크게 2개 있다. 내관과 외관을 합하여 모두 10개의 산자형이 있는데 이것은 十干을 상징하며 색상은 푸른색이고 관모의 아래쪽에는 흰색으로 띠를 둘렀다. 또한 염주와 단주를 지닌다. 염주³²⁾는 연꽃 열매로 만들며 동방을 나타내는 수인 三, 八을 상징하여 38개의 주를 꿰어 목에 걸고, 손에는 천수지수를 상징하는 12개의 주를 꿰 단주를 왼손에 낀다. 그리고 염주와 단주에는 수술이 달려 있는데 道體에 따라 4색을 달리한다.

여자 교도들은 정복으로 원삼을 착용하며, 관모는 현재 착용하지 않는다.

10) 증산법종교

증산법종교 남자 의례복은 '법복' 또는 '도복'으로 지칭되며, 관모는 '칠층관'이라고 한다. 여자 교도들의 의례복은 '도복'으로 지칭되며, 관모는 '연화관'이라고 한다.

남자 교도들은 흰색 한복 저고리와 바지 혹은 양복 위에 노란색 포를 착용한다(사진 9). 포의 형태는 단령포이며 가슴 아래에 비교적 넓은 노란색 허리띠를 두른다.

남자 관모의 형태는 원통형으로 정수리 윗부분이 트여 있고 외관상으로 정자관과 비슷하나 관모 위쪽에는 끝이 뾰족한 4개의 봉우리가 산자형을 이루며, 7첩으로 중첩되어 7층관을 이루고 또한 관모의 양옆으로는 각각 7개의 뾰족한 산모양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의 '7'은 복두칠성의 '七星'을 상징한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無極을 나타내며, 소재는 마섬유인 삼베이다.

여자 교도들은 흰색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노란색 포를 착용한다. 포의 형태(사진 10)는 남자와 달리 소매가 넓은 주의로서 깃의 형태에 있어서 남녀가 달리하고 있다. 남녀 교도들의 도복의 색상



〈사진 9〉 증산법종교 남자 의례복식



〈사진 10〉 증산법종교 여자 의례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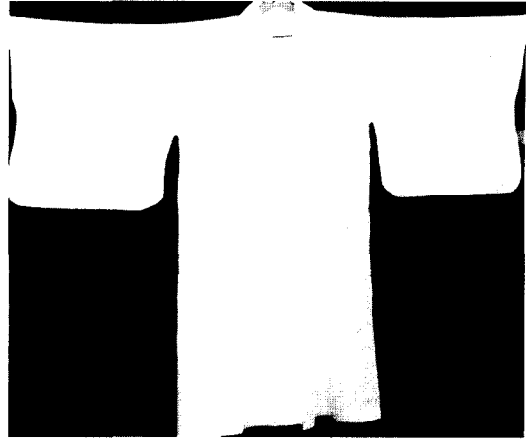
은 모두 음양오행에서 중앙, 토를 나타내는 노란색을 사용한다.

여자 관모의 형태 역시 외관상으로는 정자관과 비슷한 형태로 윗쪽의 4개의 봉우리가山자형을 이루나 남자 관모와는 달리 정수리 윗부분이 막혀 있으며, 山자형 모양은 연꽃³³⁾의 꽃잎을 상징한다. 또한 관모의 안쪽에는 머리 모양과 같은 둥근 형의 내관이 있어서 머리에 착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11) 모악교

모악교에서는 남녀 교도들의 의례복을 ‘범의’로 지칭하며, 남자 교도들은 관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그 명칭은 없고, 여자 교도는 예전에 ‘시루관’이라는 관을 착용하였으나 현재는 착용하지 않는다.

남자 교도들은 의례시에 흰색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범의로서 ‘靑衣道服’이라고도 부르는 옥색 포를 착용한다(사진 11). 靑衣道服은 양옆에 무가 없으며 트임이 있고 앞으로 여미는 중치막³⁴⁾의 형태이다. 여자 교도들은 색상에 관계없이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노란색 금박이 되어 있어 화려해 보이는 당의를 착용한다(사진 12). 여기에서 노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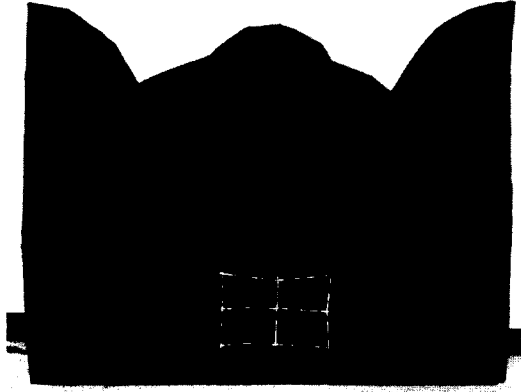
〈사진 11〉 모악교 남자 범의

은 후천시대에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임을 의미한다.

관모의 형태는 〈사진 13〉과 같이 외관상으로 山字形 2단이 중첩된 정자관의 형태이며 산의 끝은 뾰족하지 않고 둥근 형태이다. 앞뒤 중앙에는 田의 형태가 실로 새겨 있는데 ‘田’자는 지구 즉 땅을 상징한다고 한다.



〈사진 12〉 증산법종교 여자 의례복식



〈사진 13〉 종신법종교 남자 의례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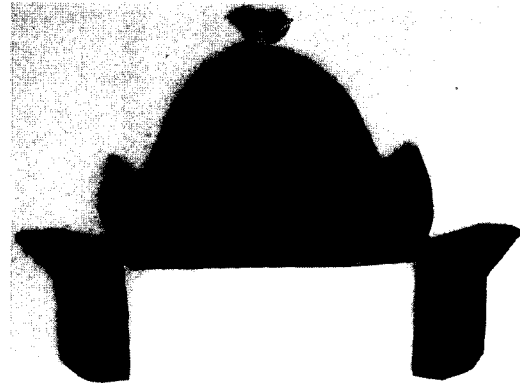
12) 무을교

무을교에서는 의례복을 '道服', '道衣'로 지칭하며, 남녀 교도들 모두 '蓮冠'이라는 관을 착용한다.

남자 교도들은 흰색이나 옥색 한복 저고리와 바지, 혹은 흰색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며 그 위에 흰색 포, 행전, 버선, 고무신 혹은 양말과 구두를 착용한다(사진 14). 포의 형태는 소매통이 넓은 주의이



〈사진 14〉 무을교 남자 의례복식



〈사진 15〉 무을교 여자 연관

며 허리에는 세조대를 맨다. 세조대의 색상은 착용자가 맡은 직책에 따라 오방색이 사용된다.

남자 교도들의 연관은 형태로 보아 연꽃을 상징하는 듯하다. 연관의 형태는 복두(복)와 비슷하여 이마 윗부분에 각이 있고 정수리쪽에도 각이 진 형태이며, 연관의 옆쪽에 위치한 작은 위로 올라간 형태로 달려있다. 원래 작은 신하는 아래로 군자는 위쪽으로 달려는데 무을교에서 각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인간 중심사상 즉, 착용자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정수리 위쪽에는 여러 겹의 종이로 양끝이 안쪽으로 말리도록 하여 달아 놓았다. 아마도 연꽃을 상징하는 듯하다. 관모의 색상은 금색이며 관모 뒤쪽에는 조직 구성원의 道體에 따라 五行 中의 한글자가 가식되어 있으며 앞쪽에는 5개의 점이 장식되어 東·西·南·北·中央을 가리킨다. 즉 木이 가식되면 이 관모를 쓴 사람은 東方의 책임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자 교도들은 흰색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그 위에 남자 교도들이 착용한 것과 동일한 포를 착용한다.

여자 교도들의 관모(사진 15)의 형태는 앞·뒤가 동일하며 연꽃을 상징하듯 연잎모양으로 덮여 있으며 그 색상은 음양오행에서 보이는 붉은색(赤), 푸른색(靑), 녹색(綠), 노란색(黃) 등이 나타나고 있다.

13) 청도대향원

청도대향원에서는 남녀 교도들의 의례복을 '도



<사진 16> 청도대항원 남자 의례복식

복'으로 지칭하며, 남자 교도의 관모는 '통천관'이라고 지칭하며, 여자 교도의 관모는 남자의 것과 동일하였으나 현재는 착용하지 않는다.

남자 교도들은 흰색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옥색 포(사진 16)를 착용한다. 포의 형태는 뒤쪽에 전삼이 달려 있는 도포임을 알 수 있다. 여자 교도들은 한복 옥색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며 그 위에 포를 착용한다. 포의 형태는 <사진



<사진 17> 청도대항원 여자 도복

17)와 같이 직령 합입이며 소매 폭은 넓고 양옆이 진동까지 트임이 있으며 소매 끝, 깃과 도련부분에 청색 선이 둘러 있다.

남자 관모는 원통형으로 내관이 없으며 정수리 부분이 트여 있고 소재는 마섬유인 삼베로 되어 있다.

14)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는 의례복식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례시에 각자 가지고 있는 한복이나 양복에 두루마기를 착용한다. 다만 한복을 착용할 경우 다른 교단에서는 흰색을 주로 착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곳에서는 흰색 한복이 喪禮服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5) 증산도장

증산도장 역시 의례복식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례시에 남녀 모두 간편한 양장을 착용하고 있다. 다만 색상에서 검정색, 현란한 색, 원색은 배제하고 있으며 밝고 환한 색을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현재 의복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이곳에서는 수도복으로 개량한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면 <표 2>, <圖 1~2>와 같다.

2. 儀禮服飾에 표현된 思想

宗教行動이나 의례행위 자체가 초경험적인 실재를 指向하는 것이므로 宗教行動은 그것이 宗教的이라는 단순한 事實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象徴的인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³⁶⁾. 따라서 증산교의 다양한 사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식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증산교의 儀禮服飾에는 後天開闢思想, 陰陽五行思想 및 民族主體思想이 표현되어 있다.

첫째는 後天開闢思想이다.

先天은 天地否이고 後天은 地天泰라 한다³⁷⁾. 이는 즉, 선천과 후천의 경계를 동학혁명이 일어난 1865년(경신년)을 기점으로 하여 先天의 陰陽 질서는 天地

〈표 2〉 증산교단 儀禮服飾의 구성과 명칭

| 구성 및 명칭 교단명 | 의례복식 구성 및 명칭 | | | |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 여자 | |
| | | | 의복 | 관모 | 의복 | 관모 |
| 보천교 <사진 1, 2>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 한복(저고리, 치마)+관 | 제복 | 예모 | 제복 | 예모 |
| 선도 | 평상복 | 평상복 | × | × | × | × |
| 순천도 | 한복(저고리, 바지)+포 양복+포 | 한복(저고리, 치마), 양장 | . | × | . | × |
| 삼덕교 <사진 3>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 한복(저고리, 치마)+(포) | 법복 | 통천관 | (예복) | × |
| 동도법종금강도 <사진 4>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 한복(저고리, 치마)+포+관 | 제복 | 예관 | 제복 | 예관 |
| 태극도 <사진 5> | 한복(저고리, 바지)+포 | 한복(저고리, 치마) | 외수의 | × | 내수의 | × |
| 증산교본부 | 한복(저고리, 바지)+포 | 한복(저고리, 치마) 개량한복(저고리, 치마) | . | × | . | × |
| 보화교 <사진 6, 7> | 한복(저고리, 바지) | 한복(저고리+치마) | . | 피랑자 | . | × |
| 미륵불교 <사진 8> | 한복(저고리, 바지)+포+술+관 평상복+포+술+관 | 한복(저고리, 치마)+원삼+관 | 법복 | 인화관 | 법복 | (인화관) |
| 증산법종교<사진 9, 10>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양복+포+관 | 한복(저고리, 치마)+포+관 | 법복, 도복 | 칠층관 | 도복 | 연화관 |
| 모악교 <사진 11, 12, 13>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 한복(저고리, 치마)+당의 | 법의 | . | 법의 | × |
| 무을교 <사진 14, 15>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양복+포 | 한복(저고리, 치마)+포+관 | 도복, 도의 | 연관 | 도복, 도의 | 연관 |
| 청도대향원<사진 16, 17> | 한복(저고리, 바지)+포+관 | 한복(저고리, 치마)+포 | 도복 | 통천관 | 도복 | × |
| 대순진리회 | 한복(저고리, 바지)+포 | 한복(저고리, 치마) | . | × | . | × |
| 양복 | 양복 | | | | | |
| 증산도장 | 양복 | 양장 | . | × | . | × |

(× : 의례복식 착용 무, . : 명칭 없음)

否, 후천의 陰陽 질서는 地天泰의 형상이라고 본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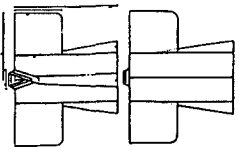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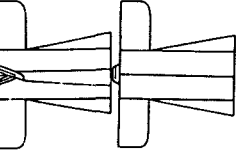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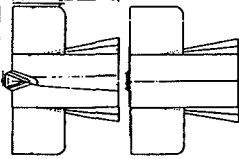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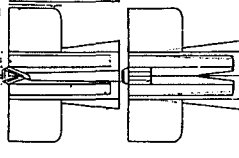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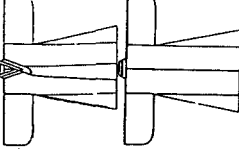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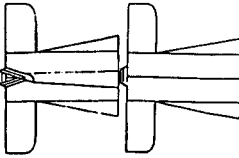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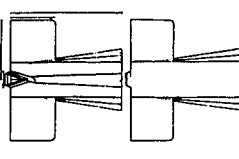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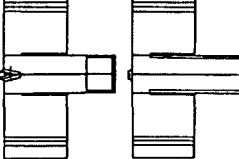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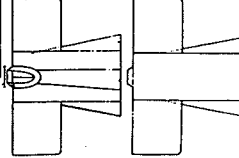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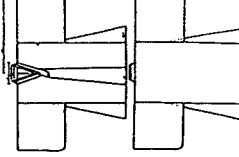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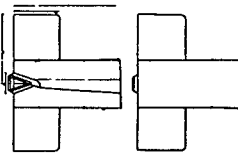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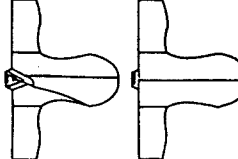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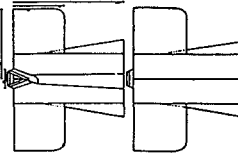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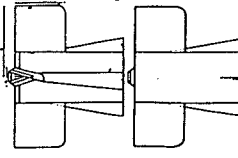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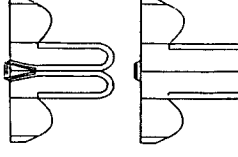
예컨대 先天의 陰陽 질서는 天地否의 형상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陽이 위에 있고, 여성을 상징하는 陰이 아래에 놓여 있어 陽이 陰을 압박하는 陽의 중심시대이었으나, 후천 세상의 陰陽 질서는 그와는 반대로서 陰인 여성이 위에 있고, 陽인 남성이 아래로 놓이는 형상의 地天泰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陰陽이 자유로이 교류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로 안정을 이루는 相生의 關係를 나타내어 여자를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복, 예법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증산교에서는 남녀가 서로 차별되지 않으며, 의례적인 행사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의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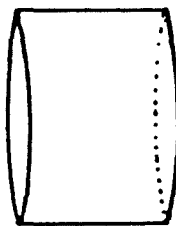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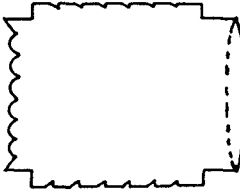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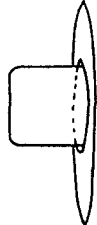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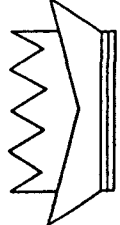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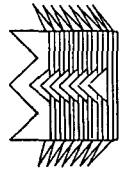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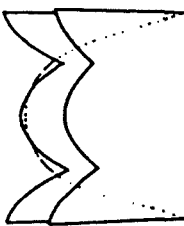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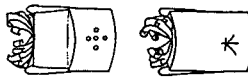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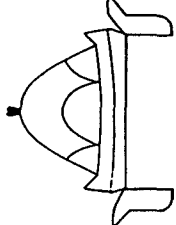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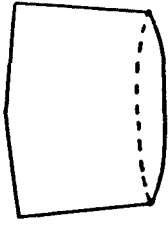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 의례복에서 품계에 따른 남녀 차이는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이 사상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先天은 陽이 體 즉 중심원리이며, 陰이 用 즉 응용원리가 되어, 선천은 남자 중심으로 예법, 의복 등 생활 범위가 남자 중심인 부계사회이었으나, 후천은 陰이 體이며 陽이 用이라 했다³⁹⁾. 즉 여자가 중심은 아니나 약자의 위치에 있던 선천과는 달리 여자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여가는 것을 말하며 예법, 의복에서도 과거의 폐쇄적이며 감싸던 의복 형태에서 간편화, 간소화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 1 > 의례복식의 형태와 색상

| | | | | | |
|-----|---|---|---|---|---|
| 교단명 | 〈사진 1〉 보천교(남) | 순천도(남) | 〈사진 3〉 삼덕교(남) | 〈사진 4〉 동도법종교(남, 녀) | 〈사진 5〉 태극도(남) |
| 형태 |  |  |  |  |  |
| 색상 | 옥색 | 흰색 | 흰색, 옥색 | 노란색 | 흰색 |
| 교단명 | 증산교본부(남) | 〈사진 8〉 미륵불교(남) | 미륵불교(여) | 〈사진 9〉 증산법종교(남) | 〈사진 10〉 증산법종교(여) |
| 형태 |  |  |  |  |  |
| 색상 | 흰색 | 옥색 | 옥색 | 노란색 | 노란색 |
| 교단명 | 〈사진 11〉 모악교(남) | 〈사진 12〉 모악교(여) | 〈사진 14〉 무을교(남, 여) | 〈사진 16〉 청도대향원(남) | 〈사진 17〉 청도대향원(여) |
| 형태 |  |  |  |  |  |
| 색상 | 옥색 | 노란색 | 흰색 | 옥색 | 흰색 |

◀ 2 ▶ 관모의 형태와 색상

| | | | | | |
|-----|--|--|--|--|--|
| 교단명 | <사진 21> 보친교(여) | <사진 3> 삼덕교(남) | <사진 4> 동도범중금강도(남, 녀) | <사진 6> 보화교(남) | <사진 8> 미륵불교(남) |
| 형태 |  |  |  |  |  |
| 색상 | 검정색 | 검정색 | 노란색(금색) | | 옥색(청색) |
| 교단명 | <사진 9, 10> 종산범중교(남, 녀) | <사진 13> 모악교(남) | <사진 14> 무을교(남) | <사진 15> 무을교(여) | <사진 16> 창도대향원(남) |
| 형태 |   |  |  |  |  |
| 색상 | 검정색 | 검정색 | 노란색(금색) | 녹, 붉, 청, 노란색 | 검정색 |

따라서 후천개벽사상은 여러 교단의 의례복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순천도에서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보화교에서 저고리 여밈이 다른 교단과 다른 이유를 선천과 후천의 구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증산교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로서 전통적인 한복 저고리와 치마로부터 간편성을 도모하고 가슴 압박에 대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 개량한복을 착용하기도 하며 선도, 증산도장, 대순진리회에서는 양장, 양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화되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즉 중심사상은 후천개벽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陰陽五行思想이다.

우리 나라에 실용주의의 학문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중엽이며,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눈뜨기 시작한 개화기까지의 한국인의 의식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은 역시 陰陽五行的인 우주관에 바탕을 둔 사상체계였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는 모두 이러한 사상체계에 바탕을 둔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⁴⁰⁾.

陰陽은 모든 자연현상을 陰과 陽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陰과 陽은 고요와 움직임, 약함과 강함, 어두움과 밝음, 슬픔, 기쁨, 악과 선 등 이를테면 세상의 모든 변화 곧 모든 차별의 근원이다. 그렇다고 하여 陰과 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나 사물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상의 분리이다. 그러므로 陰과 陽은 하나이며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도형으로 만든 것이 太極이다⁴¹⁾.

五行思想 즉, 천지의 수가 오행을 생성하는 것은 天一과 地六이 배합되어 북방에 水를 두고, 天七과 地二를 배합해서 남방에 火를 이루며, 天三과 地八을 배합해서 동방에 木을 이루고, 天九와 地四를 배합해서 서방에 金을 그리고 天五 地十으로 중앙에 土를 이룬다는 이치인 것이다⁴²⁾. 그러므로 오행사상에 의하면 청색은 오행에서 동방을 뜻한다. 증산교의 여러 교단에서 청색계열의 의례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는 동쪽에 있으므로 동방을 상징하는 청색을 입어야 된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품계에 따른 색상 선택도 음양오행사상에 근거

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黑色은 증산 법종교, 삼덕교, 모악교, 청도대향원의 관모에서 볼 수 있으며, 靑色은 미륵불교의 관모에서 흰색과 함께 사용되었고, 赤色은 무을교의 여자 교도들의 연관에서 보이며, 黃色은 증산법종교의 남녀 도복, 모악교의 당의, 무을교의 여자 교도들의 연관, 남자 교도들의 연관에서 보이며 동도법종금강도에서는 건물 전체가 거의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또, 관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民族主體思想이다.

우리 겨레를 백의 민족이라고 말한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흰색을 숭상하였으며 흰색이 갖는 정서에는 신성, 고귀, 순결 등이 함축되어 있다. 황제가 타는 말이나 지체 높은 분의 말은 의례적으로 백마이며 여기에는 정결, 고귀, 순결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⁴³⁾. 이러한 의미에서 증산교 교단의 대부분이 의례복으로 흰색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 외 옥색도 사용되고 있다. 옥색의 경우 흰색을 제외할 경우 가장 순색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착용하고 있다.

IV. 要約 및 結論

본 논문은 의례복식을 통하여 증산교 사상을 이해하고자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보천교, 선도, 순천도, 삼덕교, 동도법종금강도, 태극도, 증산교본부, 보화교, 미륵불교, 증산법종교, 모악교, 무을교, 청도대향원, 대순진리회, 증산도장 등 증산교의 15개 교단을 대상으로 하여 의례복식의 명칭, 구성, 형태, 색상 등을 통해서 의례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의례복식에 나타난 사상에 대해 분석 고찰하였다.

1. 증산교의 대다수 교단은 의례복식을 제정하고 있었으며, 의례복식의 명칭은 주로 법도와 관련된 法服(法衣), 道服(道衣) 등으로 지칭되고 있었으며 이 외에 '제복', '외수의' 등으로도 지칭되고 있었다. 그러나 치성시의 祭服의 의미가 강하였다. 관모의 명칭은 칠층관, 연화관, 연관, 인화관, 통천관, 예모, 예관 등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2. 의례복식의 구성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남녀 교

도들이 기본복으로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하며 그 위에 포와 관모를 착용한다. 그 외 선도, 대순진리회, 증산도장에서는 양복과 양장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3. 기본복으로 착용하는 한복은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이며, 포의 형태는 대다수가 소매 통이 넓은 주의와 오늘날의 두루마기 형태이며 단령포, 중치막, 도포 등의 형태도 있었다. 여자 교도들이 착용한 포의 형태는 원삼, 당의 또는 이들을 변형한 형태가 있었다.

4. 색상은 대순진리회, 증산도장을 제외한 대부분 교단에서 흰색과 옥색(엷은 푸른색), 노란색을 착용하고 있었다. 흰색은 신성, 고귀, 순결과 민족 전통의 정신을 상징하며, 옥색은 청색 계열의 색으로서 동방 즉 한국을 상징하며, 우리 나라에서 증산교를 상징하는 색으로도 표현되고 있었다. 노란색은 음양오행에서 중앙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증산법종교(남, 녀), 동도법종금강도(남, 녀), 모악교(여)의 의례복식에서 사용되는 등 증산교의 의례복식의 색채 사용은 오행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5. 의복의 소재는 증산교 각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으며 계절에 맞추어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합성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6. 관모의 형태는 조선시대에 썼던 정자관과 외관상 비슷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색상은 대부분이 검정색이고 그 외 노란색, 녹색, 붉은색, 청색 등도 있었다. 소재는 의복과 마찬가지로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증산법종교에서는 관모의 소재로 삼베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증산교의 의례복식에는 後天開闢思想과 陰陽五行思想, 民族主體思想이 표현되어 있었다.

이상에서처럼 증산교의 의례복식은 명칭이나 구성, 형태, 색상 등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복식이나 기성 종교의 복식을 취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사상을 반영한 예복을 제정하여 타종교와는 다른 의례복식을 착용하고 있었다.

■ 參考文獻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1992). 韓·中·日 三國 新宗

教實態의 比較研究.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11.

柳炳德(1985).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종교학회, 428.

탁명환(1991). 한국 신흥종교의 실상, 413. 국경.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1982). 韓·中·日 三國 新宗 教實態의 比較研究.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158~161.

1999. 10. 2.(음력 9. 19.) 상제 화천날 방문.

임상임(1993).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II), 원광대 논문집, 27, 343.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9). 동아출판사, 581.

洪凡草(1989). 증산교 첫걸음. 汎甌山教研究院, 12.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9). 동아출판사, 581.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9). 동아출판사, 581.

盧吉明(1989). 한국 신흥종교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83. 대구: 대구카톨릭 출판사.

李相載(1996). 甌山教의 生成背景과 그 思想에 관한 小考, 49. 대구: 大邱曉星카톨릭대.

김기준(1992). 증산도 사상연구 2집, 증산도 사상에서의 천지도수, 37-36. 대원출판사.

度數는 陰陽象數의 理法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예정된 것으로서 인간과 천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우주 정신의 법도로서 자연섭리요, 천지의 생존질서이고 天地運數의 설계도이자 시간표이다. 구체적으로는 天界의 신명과 지상의 인간과 만물이 세월이 감에 따라 신명들은 어떻게 역사하고 인류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며 만물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그 변천의 원리와 변동의 규모와 변화과정을 빈틈없이 짜놓은 우주의 대설계도이며 里程標라 할 수 있다. 증산교에서는 도수를 인간과 천지의 운명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유하고 있다.

李相載(1996). 甌山教의 生成背景과 그 思想에 관한 小考, 17. 대구: 大邱曉星카톨릭대.

7월 7일 홍범초 교수(증산교단 연합회장) 면담.

李相載(1996). 甌山教의 生成背景과 그 思想에 관한 小考, 76. 대구: 大邱曉星카톨릭대.

- 金洪喆(1996). 理性과 信仰, 甌山教의 祭天儀禮, 11, 60. 수원카톨릭대학출판부.
- 金洪喆(1996). 理性과 信仰, “甌山教의 祭天儀禮”. 11, 67. 수원카톨릭대학출판부.
- 문화체육부편(1996).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433~434.
- 李相載(1996). 甌山教의 生成背景과 그 思想에 관한 小考, 77. 大邱曉星카톨릭대.
- 李相載(1996). 甌山教의 生成背景과 그 思想에 관한 小考, 76. 大邱曉星카톨릭대.
- 이기동, 최영진(1997). 주역, 80. 두신동아.
하도는 음양대대(陰陽對待)의 중층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상이다. 하도를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1과 6의 水에서 시작하여 木→火→土→金→水의 相生하는 순환운동을 상징한다.
-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辭典, 168. 民文唐.
2000년 7월 10일 홍범초(증산교단 연합회 회장) 면담.
- 洪凡草(1988). 汎甌山教史, 578. 汎甌山教研究院.
2000년 7월 10일 홍범초(증산교단 연합회장) 면담.
- 김복순. 이박문 교도 면담.
- 洪凡草(1988). 汎甌山教史. 汎甌山教研究院(1996), 578.
- 김복순. 이박문 교도 면담.
- 김복순. 이박문 교도 면담.
- 任相任(1991).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중양대 박사학위 논문, 70.
- 任相任(1991).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중양대 박사학위 논문, 71.
-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辭典, 353. 民文唐.
-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辭典, 449. 民文唐.
-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辭典, 245. 民文唐.
- 李周鎬(1986). 宗教服飾에 나타난 色彩象徵研究, 3.
- 李重盛(1992). 天地開闢經, 卷之壹 辛丑便, 61. 大道研究院附設龍鳳出版.
2000년 7월 10일 홍범초(증산교단 연합회 회장) 면담.
- 李重盛(1992). 天地開闢經, 卷之壹 辛丑便, 83. 大道研究院附設龍鳳出版.
- 河龍得(1999).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31. 明志出版社.
- 金日煥(1994). 陰陽五行의 象徵的 表現에 關한 研究, 3. 大邱大學校.
- 河龍得(1999).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32. 明志出版社.
- 河龍得(1999).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17. 明志出版社.